

광우병 · 조류독감 파동 이후 양돈 전망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전망



정규성 소장
축산물유통연구소

○전국 도매시장의 박파 비육돈 평균가격이 4,000원/kg대를 “돌파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못갈 걸”이 화두에 오를 만큼 돼지 거래가격 오름세가 가파르게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단기간의 급등세를 보인 돼지거래 가격이 육가공업계의 원료 구매조절, 소비자 거래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확대 위축과 조류독감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닭고기의 소비회복과 BSE 영향으로 장기간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영향 등이 복합작용하며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돼지 거래가격의 가장 중요 요인인 출하대상 물량의 부족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돼지 거래가격의 강보합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비중을 싣고 있다.

○최근의 돼지 거래가격 흐름으로 볼 때 2004년도 돼지고기 수급상 주목해야 될 부분중 하나는 수입물량 추이로 연초에 예상되던 수입물량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관의 전망을 참조하면 금년도 돈육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79만5천여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의 6

만8백여톤 대비 22% 정도 증가한 7만4천여톤으로 전망하여, 2004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 추정물량 4만여톤을 포함하면, 총 91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수요면에서는 전반기의 쇠고기, 조류 육류의 소비대체 효과가 반영될 것을 예상하여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한 86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년 수입물량 추이는 1월의 5천여톤, 2월에는 4천930여톤이 수입되어 돈가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못미치고 있으나, 3월 이후 올해 상반기 돈가 강세를 예상한 수입물량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 것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 예상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 정규성 소장 : 관련기관의 전망을 참조하면 금년도 돈육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79만5천여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22% 정도 증가한 7만4천여톤으로 전망하여, 2004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 추정물량 4만여톤을 포함하면, 총 91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쇠고기갈비 대체 품목으로 돼지갈비, 가공제품 원료, 양념육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가격 상승과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삼겹보다는 전각 등의 수입물량이 확대되고, 확대된 이후에도 공급라인의 한 축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물량의 증감은 국내 돈가의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은 당연하나 국내 돈육 소비가 냉장 인기부위 위주로 편중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냉동삼겹은 상대적으로 수입물량 비중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 돼지거래 가격은 총사육두수 증가에도

질병 후유증 영향으로 출하물량 부족세와 수입 쇠고기 소비대체 효과가 클 것이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강세기조가 예상되어 1/4분기에는 생체 kg기준 21~23만원대로 예상되고, 2/4분기에도 계절적인 수요증대와 출하물량 부족세 지속 영향으로 22~25만원대를 형성할 것이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출하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상반기의 수입물량 증가분이 작용되어 약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나, 약세폭은 출하물량 증가폭과 시중경기 추이, 수입물량 증가폭 등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질병 발생 여부도 큰 변수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지육경락가 2,900원대/kg 전망



김형린 대표
맥스피드

○작년 12월 초부터 충북 음성을 시발(12월 11일 공식 확인)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 이후, 소비자 들은 닭과 오리고기에 대해 소비를 기피하여 산지 육계 값은 조류독감 확인전인 12

월 10일 1kg당 991원에서 24일에는 616원으로 40% 가까이 추락했다. 이어서 12월 25일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돼 광우병 예방체

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별도의 광우병 검사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드러나, 작년 국내 쇠고기 총공급량의 약 44%를 점유했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우려까지 터지자 전 국민은 경악했다.

○조류독감과 광우병 사태로 외식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연말 성수기를 누려야 할 음식업종이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매출 감소가 가장 심각했던 업종은 소고기를 취급하

<표 1> 월별 전국 평균 지육경락가 추이

(원/지육kg)

전국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평균
2001년	2,354	2,255	2,279	2,756	3,024	3,120	2,807	2,696	2,383	2,086	2,497	2,775	2,572
2002년	2,731	2,756	2,788	3,071	3,075	3,259	2,615	2,249	2,047	2,027	2,293	2,243	2,614
2003년	2,222	2,135	2,280	2,409	2,780	2,956	2,663	2,575	2,069	1,919	2,277	2,525	2,401
2004년	2,874	3,282	3,350	3,100	3,400	3,700	3,200	2,700	2,400	2,200	2,300	2,500	2,917



〈표 2〉 사료가격의 인상

년 / 월	0312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411	0412	년간
사료단가	310	343	343	360	377	377	392	407	407	407	417	417	417	388.7
인상(원/kg)		33		17	17		15	15			10			107
지육가(서울)	2497	2818	3235	3450	3500	3600	3700	3450	3300	2800	2500	2400	2400	3096

는 음식점들로 작년말 현재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업소가 무려 72%에 달했다. 닭과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역시 전체 업소의 67%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에 돼지고기를 다루는 업소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어 매출감소폭이 30% 이상인 업소가 36%였다.

○그리하여 타축종의 질병 발생으로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년 연초부터 〈표 1〉과 같이 돈가가 급등하여 급기야 금년 3월 6일에는 3,500원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들어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에 탄핵정국과 극심한 경제난에 이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공황에 음식점들의 저가의 수입돼지고기의 대체 소비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급감하여 3,000원선에서 조정국면에 들었다가 6월에는 3,700원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경기침체에다 원자재 파동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오르게 될 하반기에는 설령 질병(특히 PMWS, PED)에 의한 출하두수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낮은 돈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지육경락가는 kg당 2,900원대(두당 194천원)가 될 전망이다.



● 김형린 대표 : 2004년 연평균 지육경락가는 kg당 2,900원대(두당 194천원)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의 도축두수는 돈열백신의 후유증과 각종 소모성 질병에 따른 폐사두수 증가로 출하물량이 감소하여 작년도 753만두보다 8% 이상 감소한 691만두에 불과할 것이다. 유로화 강세와 유럽 수출국의 수출여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미주로

부터의 수입이 상반기에 늘어날 것이며 연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된 75천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의 고돈가로 사육의욕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의외로 사육현장에서의 소모성 질병의 피해가 심각하여 10% 이상의 이유후 위축 폐사율을 보이는 농장이 약 20%에 이르고 있어 〈표 2〉와 같이 사료가격이 수차례 인상(최소 107천원/톤)될 경우 연평균 사료비가 역 8만원 정도 인상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규격돈 출하 1두당 사료비가 적어도 15천원 상승하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양돈장들의 도태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분뇨처리와 노동력의 확보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금년도의 사육두수는 작년도보다 1.4% 감소한 900만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겹살 2만원 금(金)고기, 돈가 강세



권영철 대표
(주)미트저널

올 들어 식육시장의 화두는 '돼지고기'로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광우병, 조류독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는 돼지고기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부 기능성 냉장삼겹살 가격이 kg당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돼지고기를 둘러싼 주변상황을 볼 때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은 예상치도 않았던 ‘원천적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옛 말에도 있듯이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잘 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 최근의 고돈가는 산지와 수입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산, 수입산 할 것 없이 유통 및 육가공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돼지 한 마리 작업하면 3만원씩 적자난다”는 것은 국내 육가공업계의 어려움을 한 마디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진다면 작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가공제품의 소비는 정체, 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들은 “수입육 취급도 병행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돼지고기 전문식당 역시 “삼겹살을 kg당 1만2천원에 납품받고 있는데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수입산을 돌려 판매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판이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지는 어떤가. “그래도 남는 것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료값,약품값, 인건비 등의 상승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돈가는 첫째, 도축두수 감소로 지난 1월 1백 24만2천284두로 전월대비 10.1%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11.3%가 줄어들었다. 둘째, 양돈 사료생산량으로 지난 1월 45만8천 516톤으로 전월 대비 13.9%, 전년동월 대비 11.2%가 각각 감소되어 사육두수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도축두수가 2002년보다 감소했다는 점과 사료생산량 또한 4.9% 감소했다는 점에서 국내 사육두수는 지난 해 3월부터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근 출하두수 감소의 주요인은 PMWS(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로 국내에 만연되고 있어 올 한해 출하두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수입육 시장 역시 “지난 2년간 적자 봤던 것을 올해에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수입물량도 여의치 않다. 유럽산 목살 가격이 삼겹살 가격을 추월하는가 하면, 수입산 갈비 가격이 국내산을 앞지르고 있는 등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산 삼겹살 가격은 쇠고기 가격에 육박하는 등 아예 수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산 돼지고기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돈**